

건조한 날씨에 당분간 '젓빛악몽' 지속

■ 때 이른 황사특보...광주·전남 비상

'꽃샘추위' 시작 3월에도 발생 가능성 높아 외출 되도록 피하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주로 3~4월에 집중되던 '봄철 불청객' 황사가 벌써 시작됐다. 올해 들어 첫 황사가 지난 22일 발생한 데 이어 짙은 황사가 광주·전남 하늘을 뒤덮으면서 5년 여만에 황사 특보까지 내려졌다.

◇짙은 황사...5년 만에 특보까지=2월 광주·전남 황사특보가 내려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09년 12월 25일 1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19 $\mu\text{g}/\text{m}^3$ 를 기록한 지 5년 2개월 만이다. 전남은 지난 2011년 5월 13일 흑산도 미세먼지 농도가 1025 $\mu\text{g}/\text{m}^3$ 까지 올라간 이후 3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황사 특보는 23일까지 지속되다가 이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해제됐다. 기상청은 24일에도 짙은 황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먼지 농도도 올라가 하늘이 젓빛으로 바뀌었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광주지역은 1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2013년 42 $\mu\text{g}/\text{m}^3$)의 10배를 뛰어넘는 426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았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로 연평균(2013년 39 $\mu\text{g}/\text{m}^3$)의 10배 수준인 398 $\mu\text{g}/\text{m}^3$ 에 달했다.

황사로 미세먼지 농도도 올라갔다. 지난 22일 오후 12시 18 $\mu\text{g}/\text{m}^3$ 였던 미세먼지 농도는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68 $\mu\text{g}/\text{m}^3$)→오후 2시(111 $\mu\text{g}/\text{m}^3$)→오후 3시(149 $\mu\text{g}/\text{m}^3$)로 빠른 속도로 올랐다.

◇일찍 온 불청객 '황사' 왜? =광주지방기상청은 "황사발원지인 몽골 남부 고비사막과 중국 북부 내몽골 고원 지역이 고온 건조해 황사의 조건이 일찍 형성됐다"고 밝혔다. 최근 발원지인 이 지역은 평년보다 눈이 쌓인 곳이 적은데다, 강수량도 1mm 미만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로 황사 발생 여건이 빨리 조성됐다. 여기에 때마침 몰아친 강풍이 흩날리는 3~4km 상공까지 상승시켰고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됐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황사 발생의 최악의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또 3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서풍이 불어올 경우 황사도 함께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돼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외출시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사 피해 줄이려면=폐 기능이 약한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 또 외출하는 경우 돌아오면 양치질을 하고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하다.

또 물이나 차 등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몸 안으로 들어온 오염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숨이 막혀요"

황사주의보가 내려졌던 23일 마스크 쓴 시민들이 광주천변 산책로를 걷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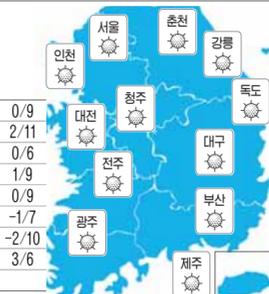
해돋이 07:09 | 일몰 10:32
해질 18:23 | 달질 23:19

열은 황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았다.

◇지역별 날씨(°C)

광주	맑음	1/10	보성	맑음	0/9
목포	맑음	1/8	순천	맑음	2/11
여수	맑음	2/10	영광	맑음	0/6
나주	맑음	0/10	진도	맑음	1/9
완도	맑음	1/9	전주	맑음	0/9
구례	맑음	0/10	군산	맑음	-1/7
강진	맑음	0/9	남원	맑음	-2/10
해남	맑음	0/9	흑산도	맑음	3/6
장성	맑음	-1/8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0.5
	남바다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남해	남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0.5
	남바다(서)	북서~북	1.0~1.5	북서~북	0.5~1.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40
빨래	5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04	11:02
	18:16	23:22
여수	00:38	06:31
	12:49	18:58

◇주간 날씨

25(수)	26(목)	27(금)	28(토)	3/1(일)	2(월)	3(화)
1/10	3/6	-1/5	-1/8	3/8	1/9	1/10

'착용보류' 방화복 1만9천벌 전망 소방현장서 퇴출

품질 검증이 되지 않아 착용이 보류된 특수방화복 1만 9천벌이 결국 소방현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착용보류 조치된 방화복 1만 9000벌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일선에서 사용 중인 제품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업체가 제조 단위(로트, lot)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어 샘플조사로 품질이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선 소방서에서 무검사 방화복이 공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안전처와 조

달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4개 업체 5300벌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된 정황이 확인됐으며, 안전처는 4개 업체가 납품한 1만 9300벌 전량에 대해 착용을 보류하라고 이날 초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

당초 안전처는 착용 보류 조치된 방화복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그러나 내부 검토 결과 검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 1만 9000벌 전량에 대해 방화복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검사 비용을 물릴 당사자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 지원 없으면 내달 보육 대란"

1~2월분만 책정...광주지역 어린이집, 정부 지원 촉구

총연합회, 26일 시청앞 시위...시교육청 "대책 마련을"

광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다. 조만간 정부 지원이 없으면 '보육료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인천·전북·제주 등도 다음달이면 예산이 바닥나 '보육료 대란'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해 누리과정 파행을 막자'는 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광주시교육청은 2개월분

인 120억원을, 전남도교육청은 5개월분인 43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광주는 유치원 예산 중 2개월분을 쪼개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남은 명퇴수당과 경상비 지원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다음 이를 어린이집 보육료로 돌려쓰고 있다.

문제는 편성된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는 오는 26일 2월분 예산을 집행하면 바닥나고, 전남은 3~5월 3개월분이 남는다. 3월분까지 편성한

서울·인천·전북·제주 등은 다음달이면 고갈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채 이자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로 5064억원을 증액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예산이 내리 오지 않아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될 위기"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국고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아직까지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채 발행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확보된 예비비는 내려오지도 않고, 지방채 발행은 따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교육청으로서 빚인데 쉽지 않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오는 26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총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이 1~2월분만 책정돼 있어 일부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이동하는 등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새학기 시작에 앞서 누리과정 예산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참숯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대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착한 소장수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 손님들께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자,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째 010 68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